

포장학회 논문 투고 적극 이뤄지길...

다사다난 했던 한해를 보내고, 병술년(丙戌年) 새해를 맞이하여 새해에는 늘 건강하고 언제나 새로운 좋은 일만 있고, 가정 위에 항상 사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을유년 한 해를 돌이켜 볼 때 포장업계에선 연구나 컨설팅에서 가장 수난과 고통이 컸던 한 해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2005년도는 포장업계에선 다사다난 했던 한 해 이었다. 하여간 잘 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마음을 가다듬어 우리는 좌절하지 말고 역경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길을 걷다보면 평평한 길도 있는가 하면 움푹진 곳도 있고, 돌부리에 채일 때도 있으며 깊은 강을 건널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손놓고 먼 산만 바라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포장업계를 젊어지고 갈 엘리트 포장전문가들이시여! 힘을 냅시다.” 미래는 내일도 있고 모래도 있습니다. 새 출발하여 전화위복이 되어 봅시다. 그럴수록 포장인은 더욱 단압하고 합심하여 무한 가능한 고지의 세계로 끊임없는 도전장을 내 훌륭한 新知識人 아니 CEO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는 새로운 콘텐츠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아우리며 창의적인 공간과 시간을 꾸미고 채워 알찬 내일을 설계하여야 할 것입니다.



김 덕 응

(사)한국포장학회 회장

아울러 이번 포장계의 연구비 일로 좋지 않은 이미지를 남겼지만, 정부도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 문제가 무엇인가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연구비의 사용이 개선되고 포장, 물류, 환경 등의 조사 및 연구가 잘 되도록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학회의 입장에서 보면 이번 일로 포장 등의 연구나 지도는 단절과 암흑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학회란 조사·연구된 논문을 발표하고, 국내외적으로 알리는 매체 역할을 하는 봉사 단체입니다. 기존에 수혜 받던 포장의 연구 및 지도사업비가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넘어 갔다고 하니 매우 서운한 마음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포장업계의 장래를 위해서는 정부는 다시 재고해 주기 바랍니다. 진정 자리에 연연하는 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자원이 빈약한 나라로써 오직 人的資源에 의한 科學技術立國만이 살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포장연구의 R&D를 위해 박차를 가해 개발국에 머무르지 말고 선진 포장기술입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환경대응을 전제로 한 親環境 包裝材料의 개발이나 기법이 항상 수반이 될 것입니다. 새로운 친환경포장재질이나 포장기법의 개발, 다양한 기능성 포장재의 지속적인 개발, 포장의 적정사용을 위한 적정포장이나 표준화 포장의 개발, 사용 후 폐기된 물질의 재순환 포장재 등의 개발, 상품의 물적유통을 위한 유비쿼터스시대인 RFID의 IT기술의 접목 등 모든 분야에서 상존해 갈 것입니다. 우리포장인은 계속적으로 선진 세계에서 벌어지는 각 가지 로드맵에 대한 정보를 조사·탐구하고 연구를, 황우석박사가 못다 한 그 유명한 “SCIENCE”지에 한편의 논문이라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학회에도 論文을 투고하셔서 국제적으로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구를 믿습니다. 정부를 믿습니다. ☞